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경제위기의 근본처방은?

한국경제는 진정 위기국면인가?

한국경제는 96년부터 피부로 느껴질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위기로 까지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를 논할 때 항상 들먹이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9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0%로 추정되고 있으며, 97년에는 6.3-6.4%로 예상되고 있다.

96년 경제성장률 7.0%는 여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불황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7%라는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비롯 동남아의 몇몇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어느나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감히 달성할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7.0%에는 허수가 깔려있어 형식상 높은 수준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좋지 못한 실적이라고 아우성이다. 생산은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설혹 판매되었다 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됨으로써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할진대 97년 경제성장률 6.4%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큰 위기로 느껴질만할 것이다. 7%와 6%는 그리 큰 차이가 없고, 미국이 2%대의 성장률에 만족하고, 일본은 2-3%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대만족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우리들은 「위기」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97년의 경제성장률 6%대를 놓고서 「저성장이다」 「정상적이다」로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고 보니, 만약 98-99년경 성장률이 5%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온통 난리가 날 법하다. 실제로 그 가능성이 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릴 것없이 세계에서 몇번째 가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서도 성장타령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제조기업이나 경영자들은 95년이후의 시장상황 악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저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반면,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관련 언론인들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듯이 온통 법석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환경이 어렵다는 상황 설정이 불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제3자로서 관망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인가.

아마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면서,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의 차이일 것이다. 즉, 실물경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성장의 열매를 앗아서 받아먹는데 익숙해져 있느냐의 차이-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다.

제조업 경영자 및 관계자들은 한국경제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 고지가, (고환율) 등과 함께 저생산성이라는 5(4)고1저까지 겹침으로써 성장의 한계를 피부로 인식, 경제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처방을 갈구하면서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관망자들은 70-80년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고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고매한 몸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의 책임을 정치인이나 경제인, 경제관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허세를 부리면서...

이러한 상황 인식의 차이, 근본을 바라보는 자세의 차이가 경제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걸림돌로 작용,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좀먹는 해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반문하고 싶은 실정이다.

화학저널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라는데 동감하면서도 국민일반이나 경제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가 어두운 질곡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판단, 그 원인과 처방을 「화학산업의 효율화」 차원에서 진단해보고자 한다.

경제발전은 경제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모두가 머리를 마주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